

# 교육시설 · 공사현장 '부패 제로화' 선언

## 전북도교육청-교육시설공사, 청렴 공동협약... '맑은 전북교육' 실현 다짐

전북도교육청과 교육시설공사 시공자들이 31일 청렴 공동협약을 맺고 '맑은 전북교육' 실현과 견실 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4시 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청렴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간담회에는 전주 솔내초 신축공사 등 9개 현장의 28개 시공업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 등 55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미래 교육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시설의 감독과 시공자로서 부실 시공 방지와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게 된다.

특히 공사감독자인 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독 ▲급품·항응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또 시공자인 업체 관계자들은 ▲수주 및 시공과정에서 급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 근절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와 안전사고 최선 ▲윤리경영 ▲친환경 자재 사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등을 다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공사와 발주

청 감독자가 한자리에 모여 청렴하고 투명한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면서 "청렴 공동협약을 통해 학교 시설 공사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시설물을 완성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얼음체험하며 잠시 무더위 식히세요”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8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옥마을에서 '사람의도시 만드는 날' 자원봉사활동 참여 캠페인을 진행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전주얼수'를 나눠주고 있다.

### 여름철 하수처리 사고예방 현장 점검활동 강화

전주시가 여름철 극저심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처리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6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를 처리하는 송천동 공공하수처리장, 혁신도시의 수질복원센터를 직접 찾아가 운영업체와 함께 하수처리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수질사고에 따른 문제 발생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꼼꼼하게 점검한 뒤 집중호우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수처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운영업체에 당부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매일 1회씩 현장을 살피는 등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단 한건의 경미한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사와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대, 천연물 소재 신약 연구 나선다

### 천연물 신약개발 전문기업과 산학 공동연구 · 인재양성 협약 의과대 채한정 교수 '씀바귀의 구강건조증개선소재개발 연구'

천연 농산물 기반형 신약개발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연구·융합 중심의 약학대학 유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천연물 원료 전문 기업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해 약학대학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는 최근 천연물원료 전문기업인 (주)케이씨에본(대표이사 강철호)과 천연물 전문 인력 양성과 산학 공동 연구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케이씨에본은 KT&G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 전문기업으로 천연물을 소재로 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천연물 원료의 표준화된 관리체계와 글로벌 수준의 설비를 갖춘 전문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생명 소재의 천연물 신약 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발을 위한 산학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첫 공동연구로 의

과대학 약리학교실 채한정 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씀바귀의 구강건조증개선소재개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 연구가 본격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총장은 "이번 협약이 천연물 신약개발 연구 중심의 약학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대학 앞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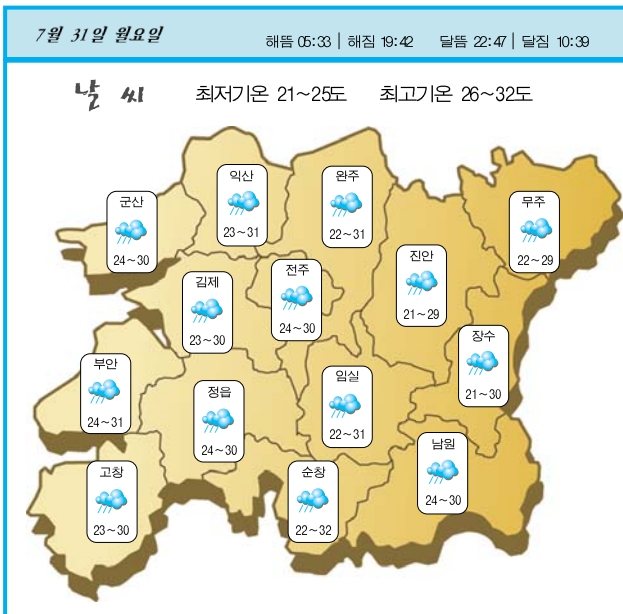
### 청소년인문포럼 개최

청소년의 열린 토론의 장인 청소년 인문포럼이 30일 오후 1시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청소년인문포럼은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주제 선정부터 기획, 진행까지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포럼이며, 이번 인문독서포럼은 청소년들의 독서토론문화 성장과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된 것 본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청소년기획단을 구성,운영했고, 틈틈이 주말을 이용해 포럼의 주제선정을 위해 토론하였다.

7개 주제별 모둠으로 한 모둠에 1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주제별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김민근 기자



### 무심코 버려지는 하수 처리수 인공습지 · 생태 실개천으로 재활용

맑은물사업본부, 10억원 투입 생태교육장 조성키로

무심코 버려지는 하수 처리수가 재이용돼 인공습지와 생태 실개천으로 거듭난다. 특히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는 하수처리장이 재이용 물을 활용한 휴식·체험공간으로 탈바꿈된다.

28일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르면 송천동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한 인공습지와 생태실개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하수처리장은 유치원생 등 2500여명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체험공간이 부족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맑은물사업본부는 10억원을 투입해 하수 처리수를 이용해 습지와 실개천을 갖춘 생태교육장 조성키로 했다.

우선, 물의 고임과 흐름의 연출을 통해 자연 정화되는 과정, 수서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물 순환 생태습지를 만들 계획이다.

또 나비원과 수서곤충원, 담수어류원, 개구리원 등을 갖춘 생태 실개천을 조성하고 관찰데크와 야외무대, 스탠드 등의 편의 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혐오시설로 인식된 하수처리장을 생태교육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한 방울의 물도 헛되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수 처리수를 활용해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공간과 학습공간으로 만든다면 하수처리시설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하수처리시설을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해 적극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14살 소녀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운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